

미국 마감 상황

2008.12.01

이승준 02) 2009-7088
leesj@leading.co.kr

28일 뉴욕증시는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떨어져 소비둔화 우려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공황 이후 최대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5거래일 상승을 기록.

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장대비 201.43p(1.17%) 오른 8,829.04에 마감. 이번주 11% 가량 상승하며 지난 11월 하락폭을 모두 만회

S&P500 지수는 8.56p(0.96%) 상승한 896.24, 나스닥 지수는 3.47p(0.23%) 상승한 1,535.57에 장을 마감.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2%, 9.7% 오르며 11월 하락폭을 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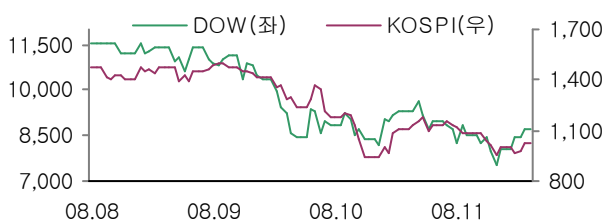
이날 증시는 추수감사절 최대 세일인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6년래 최악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혼조세로 시작. 하지만 소비둔화 우려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다는 인식에 상승세로 전환.

씨티그룹이 3,060억달러에 이르는 부실자산을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구제금융 계획으로 인하여 18% 급등하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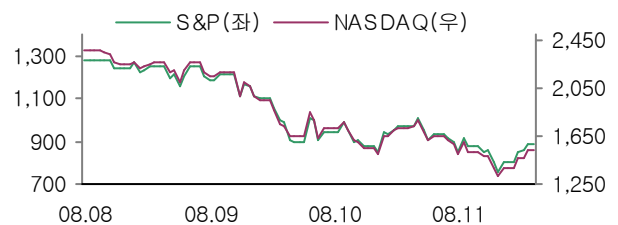
GM과 포드 자동차는 정부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해 인력감축과 채무조정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각각 8.9%, 25% 급등.

정부의 구제금융 조치가 경제를 지지할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되며 증시는 5거래일 연속 상승, 2007년 10월 이후 최대 연속 상승세를 기록.

미국 시장 주요 지표(pt, %)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